

눈길끄는 특·특·행·정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기쁘고

정읍시, 기초수급자·차상위 6696명 지원
수술비 외 사망시 유족에 2000만원 지급

정읍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전액 지자체 최조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정읍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우체국은 공익자금으로 나머지 보험료 남성 1인당 3만1900원, 여성 1인당 2만1100원을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 읍·동을 순회하며 보험 가입 설명과 신청, 심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보험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이 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만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고 재해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6696여명이다. 정읍시는 약 2억4400여만원을 투입하며 1년 만기 후에는 본인 부담금 1만원을 내면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노후 공동주택 '무상 수리' 즐겁다

익산시, 연립주택 등 150세대 미만 가구
장마철 시설 전반 안전점검 뒤 집 고쳐줘

익산시가 소규모 낡은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등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사는 노후화가 심각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익산시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183단지로 파악하고 있다. 익산시는 해빙기나 우기때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 뒤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준다. 다만 자재비는 입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관리사무소마저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불편을 줄여주려는 조치"라며 "권



익산시가 관리사무소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을 무료로 수리해준다. 역별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동학동민혁명 배경 '동학연대기' 보드게임 개발



고창 영선중학교 학생들이 보드게임 '동학연대기'를 즐기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중·고교에 보급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보드게임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보드게임 '동학연대기'를 개발, 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동학연대기는 학생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에 역사내용을 적용해 만들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지와 교수자료집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구축했다.

게임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본 단계(무장기포 점령)와 고급 단계(전주성 점령)로 구성됐다. 각자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들을 맡아 혁명과 연관된 인물과 장소, 사건카드를 모아가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인물카드에서 손화중, 장소카드에서 선운사마애불, 사건카드에서 비기탈취를 모으면 된다. 게임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연관카드를 가장 많이 모으거나 가장 많은 수확물을 보유한 사람이 집장소의 집장이 되면서 우승자가 결정된다. 고창군은 앞으로 보드게임 운영교사 양성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동학연대기 보드게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재욱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모두가 쉽게 즐기는 보드게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사에 고창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릴 계획"이라며 "혁명정신 선양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고문'을 선포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동학농민혁명 성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 농협 RPC 통합 추진...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

군산시가 브랜드쌀 개발을 위해 농협RPC(마곡종합처리장) 통합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와 지난 20일 '농협RPC 통합 추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농협RPC 통합 추진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군산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승인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RPC 통합 추진 컨설팅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 지원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3개월이며, 지역농협(RPC, DSC)경영 분석, RPC통합 방식 및 실행 전략 제시 등 RPC 통합 추진 종합계획 마련해 농협별 총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군산시 통합 RPC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문영업 군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협RPC(DSC) 통합으로 군산 대표 식량작물(쌀, 보리)의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RPC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과 마케팅을 통한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 찾아가는 치매검진 이동버스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과 마을 등 생활터전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버스(사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원보건소는 이를 위해 2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했다.



이동버스는 한 번에 2명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개조·배치했다. 이동버스에는 치매 진단 간호사가 탑승해 발열체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차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1차 선별검사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해 간단한 질문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보건소는 검사 결과에 따라 2차 진단검사가 필요하면 센터 또는 협력병원의 진료예약까지 지원한다. 인지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소견만 보여

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등 꾸준한 관리 지원을 한다. 남원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관련 모든 업무를 가정과 마을 등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어디든 찾아가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만큼 치매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